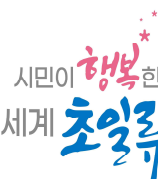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시민이 <b>행복</b> 한 세계 <b>초일류</b> 도시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9월 12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 당 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심지은 ☎440-34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초청해 투자유치 협력 요청**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 개최 -  
 -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지원 -

인천시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천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인천 송도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단 등을 인천으로 최초로 초청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인 앵커 시설·기업 유치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마틴 행켈만(Martin Henke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헤이키 란타(Heikki Ranta) 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 문고영 유럽상공회의소 에너지 및 환경위원회 위원장, 루신다 워커(Lucinda Walker)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소장, 지안카를로 그로서(Giancarlo Grosso)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전략 및 사업기획 이사, 김태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한외국상공회의소(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2천5백여 회원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86개국 127개의 해외무역관,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20만 회원사 등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정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자리는 민선8기 인천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홍콩 시티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인천의 투자환경을 설명해 글로벌 기업, 앵커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반도체, 재외동포청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인천시와 관계기관들은 인천시의 외국기업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과 인천 내 한국기업들과의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보다 합리적인 규제 수준과 기업친화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 각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활동 중인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우리 시는 인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